

문화재감정 수당 2천5백여만원 부당수령

감사원 '겸직금지의무 위반·근무태만' 이유 A씨 징계요구...고성군 "인사위에서 징계수준 결정"

A씨 "잘못 인정·부당수령금액 반납...겸직금지의무 몰랐다"

고성군 문화체육관광과에서 문화재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 A씨가 하루 8~9만원(2011년부터는 10~11만원)의 수당을 받고 문화재 감정 업무를 해오다 적발돼 '공무원 겸직금지의무 위반 및 근무태만'을 이유로 감사원으로부터 징계요구를 받았다.

A씨는 또 공무원으로 채용되기 이전인 2008년 3월 12일부터 공무원으로 채용(2010년 2월 18일)된 이후인 올해 1월까지 속초항과 양양국제공항, 남북출입항관리사무소에서 문화재 감정

업무를 하면서 허위 근무실적을 제출해 총 2천562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사실은 감사원이 지난 17일 발표한 '문화재청 기관운영감사 결과 처분요구서'를 통해 드러났다.

감사원 감사 결과 A씨는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 감정위원으로 위촉받고 2008년 3월부터 2011년 1월까지 581일을 근무한 것으로 실적을 제출했으나, 이 가운데 294일은 실제 근무하지 않고서 근무한 것으로 허위 근무

실적을 제출해 총 2천562만원(실수령액 2천452만4천400원)을 부당 수령했다.

또 2010년 2월 18일 고성군 공무원으로 채용된 뒤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채 2010년 3월 4일부터 2011년 1월 31일까지 문화재 감정 업무를 계속해 공무원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했다. 이 과정에서 '관내 문화재 보존관리 및 계임장 점검'이라는 목적으로 관내 출장 명령을 받은 후 실제로는 속초항 문화재감정관실에서 감정 업무를 수행하는 등 총 20

회에 걸쳐 근무를 태만히 했다.

감사원은 고성군수에게 A씨를 지방공무원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고성군 관계자는 "A씨가 공무원 겸직금지의무를 몰랐던 것 같다"며 "감사원의 징계요구에 따라 인사부서에 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며, 최종 결정은 징계위원회에서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지난 18일 전화통화에서 "우리도 감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뒤늦게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고 3월달에 A씨를 해촉하고, 새로운 감정위원을

공모해 7월달에 채용했다"며 "부당 수령한 금액은 반납절차를 밟고 있다"고 했다.

당사자인 A씨는 "문화재청에 위촉될 때 비상근 위촉직이어서 공무원으로 채용된 뒤에도 계속 문화재청 일을 해도 되는 줄로 알았으며, 올해 3월 공무원 교육을 가서야 겸직금지의무를 알았다"고 해명했다.

또 "알았든 몰랐든 잘못을 인정하고, 처벌에 따르겠다"며 "다만, 고성군청에서 근무한 뒤로는 공휴일에만 직접 현장으로 갔고, 평일에는 팩스 등을 통해 일을 처리하는 등 군청 업무에 충실했다"고 했다.

최광호 기자

고성산머루 대표특산물로 육성

지난 19일 특산단지 준공식...머루주스·머루찐빵·머루와인 등 생산

고성군은 지난 8월 19일 오후 2시 고성산머루 특산단지 준공식을 가졌다.

이날 준공식은 황종국 고성군수와 문명호 고성군의회의장, 박효동 도의원 등 기관단체장과 머루재배농가 및 마을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경과보고, 격려사, 축사, 테이프 컷팅, 건물관람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고성산머루특산단지는 간성읍 광산 4리 산5-1번지 2,633㎡ 일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 6억 원을 투입해 지난해 3월 착공에 들어가 올해 3월 21일 완공해 이번에 준공식을 갖게됐다.

고성산머루 특산단지는 머루주스와 머루찐빵, 머루와인 등 머루 관련 식품을 직접 만들 수 있는 2층 규모의 체류·판매장 1동과 농산물 보관창고 1동 등 총 2동

의 건물과 주차장 등을 갖추고 있다.

광산4리 마을에 위탁해 운영되는 고성산머루특산단지는 지역의 대표 특산물로 육성하기 위한 소규모생산시스템 및 가공시설 등을 구축한만큼 지역경제활성화 및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고성군 산머루는 2001년부터 본격 재배하고 있으며 현



지난 8월 19일 오후 2시 고성산머루 특산단지 준공식이 열렸다.

재 40농가가 17ha면적에서 연간 70톤을 생산하고 있다.

고성군 관계자는 "고성 산머루를 지역의 대표적인 특산물로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

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복분자주 등 다양한 주류와 음료 개발로 지역농업소득기반확충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승근 기자

강원도 지정 으뜸 음식점

염광활어횃집

여름 시즌 大바겐세일

Summer Festival (7월 1일 ~ 8월 31일)

세꼬시 30,000원	산낙지 15,000원
우럭 15,000원	광어 15,000원
성게 10,000원	개불 10,000원
물회 10,000원	명게 10,000원
소라 10,000원	오징어 10,000원

200명 300석을 갖춘 저희 거진항 '염광활어횃집'은 모든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성실하게 모시겠습니다

※ 영업시간 : 오전 9시~밤 12시 / 7.23~8.23 : 24시간 영업

염광활어횃집 대표 조선영
 실장 김정환 ☎ 682-3131, 682-0051